

오피니언

테마칼럼

건강과 생활 | 생 바로알기 | 호남 문화 | 법과 질서



조만형

딤섬·월남쌈·김치, 그 차이와 다름 인정하자

지난 4월 11일 치러진 제19대 총선에서 뽑힌 선량들 중에서 비례대표의 면면을 살펴보면 여러 분야에서 대표성을 지닌 다양한 분들이 선출되어 상당한 관심을 모았다. 그 중에서 새누리당의 이자스민은 필리핀 귀화 1세대로서 120만 국내 체류 외국인과 이민자들의 권익을 옹호할 대표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제는 이 당선인에 대한 비난이 인터넷을 달구면서 일부 보수 언론들이 이를 우리 사회문제로 건강부화하면서 제노포비아(외국인을 지나치게 혐오하는 사람)가 인종차별 문제로 번질 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의 릴레이식 '이자스민 감싸안기'와 '무차별 받아쓰기'가 문제를 심화시켰다는 시각도 있지만 더욱 더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2007년 버지니아공대에서 한국 국적 영주권자 조승희가 무차별 총기난사로 32명을 살치게 하고 29명을 다치게 하는 미역사상 최악의 캠퍼스 총기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한국 내 일각에서는 조승희가 한국 국적 영주권자라는 점을 주목해 미국사회가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악화될 것을 우려했지만 막상 대다수 미국인들은 '총기난사와 국적은 무관하다. 조는 정신질환자여서 총기를 난사한 것이다', 한국인이어서 난사한 것이 아니다.'라는 성숙한 반응을 보였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드라마가 일본이나 중국, 태국 등지의 아시아권에서 인기가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했다. 한국 아줌마나 좋아 하는 '시시한 이야기'에 될 그리 난리일까 하고 솔직히 이해가 좀 안 갔다.

그런데 드라마의 무대였던 도시들은 외국인들의 주요 관광코스로 지금도 붐비고 있으며,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겨울 연가'의 남자 주인공인 '윤사마'에 대한 인기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드라마에 이어 K팝은 더욱 인기하다. 파란 눈의 서양인들이 한국 가수를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라. 말 그대로 K팝 열풍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확대되고 있다. 유럽팬들은 슈퍼주니어나 소녀시대, f(x) 멤버의 이름이 적힌 피켓들을 들고 카메라에 비치면 한국말로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한국 아이돌 가수의 춤을 흉내 내기도 한다. 이들에게서 제노포비아나 인종차별은 찾아 볼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는 체류외국인이 120여

만 명, 결혼 이민자가 20여 만 명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다문화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의 상황은 다민족, 다인종, 혼혈화 등 복잡한 문화현상을 단순히 다문화라는 용어로 일원화시키고 있다.

우리 사회는 타문화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개념의 혼란 속에서 관(官) 주도의 다문화주의 정책이 시행됨으로써 많은 사달로부터 다각도로 비판을 받고 있다. 그 결과 다문화에 대한 오해, 이주민들의 과도한 기대, 준비가 부족한 정책의 추진, 다문화 사회에 대한 합의를 부재, 다문화가 정당한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편중성, 다민족 한국사회의 문화적 전방 부재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 이주가 필연적이라면 이들에 대해 사회통합 차원에서 대응 전략이 다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딤섬은 중국의 전통 음식이요, 월남쌈은 베트남의 그것이다. 한국의 된장찌개나 김치, 비빔밥과의 차이와 다름이 옹인되어야 한다.

문화적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프랑스나 일본과 유사한 동화주의(同化主義)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다문화주의와 전통문화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보다 무엇보다 앞서가는 선진국들의 예를 시금석으로 삼아 한국사회의 장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여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다문화 요소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 학계의 통합된 비전과 고도의 전략이 갖추어져 있을 때 가능하다.

임기응변식의 정책과 인기영합적이고 단편적인 정치기술로는 오히려 빈부의 격차, 계층 간의 격차, 하위문화권 간의 격차를 심화시켜 사회통합을 해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사회 전반에서 다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확고한 문화적 가치가 먼저 확립되어야 불행한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다문화 정책에 대한 균형과 합리성이 살아있게끔 제도를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학교에서는 강좌를 열고 동아리 지원과 공론화의 장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사회에서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일상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될 때 딤섬과 월남쌈과 김치가 더 나아가 햄버거가 함께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신대 교수·법학박사>

중고칼럼



윤빈호

다문화 사회, 다양함(多)인가 다름(差)인가

요? 아무튼 전 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인 대한민국에도 세계화의 바람이 불어 이곳 함초에도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아니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외국인 노동자 100만 시대 그리고 외국인 결혼 이민자 200만 시대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작금의 현실 앞에서 그렇다면 나는, 우리는 과연 다민족사회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는가? 너희 나라로 가라", "조선족은 인육을 먹는 다" 등과 같은 모욕을 쏟아내며 '외국인 혐오'(제노포비아)를 들어내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혐오를 행동으로 옮기며 외국인을 괴롭히는 단체를 결성하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소위 말하는 썬(KEK : Kill White in Korea)이라는 단체는 "외국인을 한 명씩 처단하겠다. 소란 피우지 말고 한국을 떠나라"는 메일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다민족사회와 다문화사회가 가져다주는 다(多)의 의미는 무엇일까? 민족과 문화의 단일성, 순수성 그리고 통일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다'는 우리와 차이(差異)가 나는 것, 이질적인 것은 순수성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방성, 연대성 그리고 세계화의 관점에서 보면 '다'는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 우리 사회를 풍성하고 다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계화는 필연적인 과제이고 개방은 세계와 호흡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라면, 다문화와 다민족을 나를 그리고 우리를 더욱 풍요롭고 다양하게 만

드는 요소입니다. '다'를 통한 사회의 다양성은 흑백 사진을 뛰어넘어 다양한 색깔이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 내는 컬러입니다.

2000년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도 할례를 베풀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야한다"라고 불평을 하면서 차별을 강조하자 사도들과 원로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이것을 논의하였는데, 이때 베드로 사도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어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까"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형제자매로 인정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교회는 더욱 풍요롭고 다양한 교회의 영역이고 외적인 자선이 늘어나는 경향을 하게 됩니다.

다민족 다문화의 '다'는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사회가 되느냐 마느냐는 바로 이 '다'의 새로운 발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다'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영남삼호성당 주임 신부>

음부즈맨 칼럼



경훈

지역언론의 햇불이 되길

월,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의 참모습을 뚜렷하게 밝혀주는 것이기에 조금의 거짓이 없고 모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신속성이 발휘되는 기사다. 가히 속도전을 방불케 하는 세계적인 무한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당당하고 지혜로운 안목으로써 어디까지나 생존전략이나 경영방침이 선진적이면서도 신속성이 함축된 미래지향적인 내용의 기사일 것이다.

세 번째는 생활상에 터잡은 기사다. 비록 천차만별의 생활전선에서 삶을 꾸려가고 있을 자라다 이는 저마다 가지고 있는 생활양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들이기에, 보다 서민층이나 일반대중과의 시선이 일치되는 내용들을 심층취재해 보도하라는 것이다.

네 번째는 정도성에 터잡은 기사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도성이란 곧 바른길에 대한 성향을 일컫는다. 그러니까 이쪽이나 저쪽에 치우치지 않는 어정정한 모습이 아니라,

이쪽과 저쪽의 입장이나 처지를 훨씬 뛰어넘어서, 바로 이쪽과 저쪽의 장점을 조화롭게 융합소통시켜 가는 바른길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건강성에 터잡은 기사다. 다수의 민중들의 삶의 언저리에서 이른바 생존경쟁의 전선과 함께 하다 보면, 무척 허덕이는 모습이다 보니 어쩌면 건강성이라는 어휘도 한갓 사치스러운 용어로 생각되기 쉽지만 그래도 광주일보의 기사 가운데 건강함과 건전한 삶의 주제와 내용이 서린 기사가 많이 게재됐으면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시민이 날마다 행복문화 속에 삶을 누려가는 것이 복지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로 언론은 사회의 목각이어야 한다. 그래서 광주일보의 1면에서 20면까지 직접 간접으로 감동과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적 기능의 숨결이 서려있어야 한다고 본다.

미혼모 극단적 선택 않도록 상담·지원 제대로 해야

울음소리 한번 잠깐 터뜨리지 못한 채 새 생명이 죽어가는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즉 나이가 어린 임마(주로 10대나 20대 초반)가 미혼모가 되는 게 두려워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아서 버린다는 혹은 모뎀 같은 데서 낳아놓고 나와버리는 경우가 다 이런 일에 해당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도 바로 만나 성관계도 맺을 만큼 성에 대해

개방적이고 즉흥적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 임신을 했으나 아이를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이런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는 것이다. 심지어 남자친구와 교제를 통해 아이를 임신했지만 출산 뒤 유기했다가 두 번째도 영아를 낳아 버리는 여성까지 보도된 적이 있다.

미혼모들의 이런 영아유기 사건은 그 피해자가 말도 행동도 못하고 땀줄조차 자르지 않은 영아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사망으

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이런 일을 저지른 미혼모 또한 평생 커다란 충격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 것이다.

이를 개인문제로 돌리기에는 사회적 책임이 너무 크다.

미혼모 지원 차원에서 불 때 사회적 제도가 허술한 상태에서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성적인 규율이나 제도가 자유 분방한 관점에 미혼모에 대해서는 무작정 손가락질부터 하는 사회가 미혼모의 영아유기 사건을 부채질하는 건 아닐까.

전국 대도시에는 미혼모들을 상담해 주는

전화가 있다고 한다. 모든 중·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전화의 존재를 선생님들이 알고 필요할 경우 청소년들이 전화를 이용해 상담을 받게 해줘야 한다. 이런 게 진정한 성교육 아닐까. 미혼모를 위한 상담과 지원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이런 충격적인 영아유기는 줄어들 것이다.

미혼모들을 위한 시설과 다양한 제도가 있고, 도움의 손길이 전해져 최악의 상황에서 마음을 바꾸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이것을 영아유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가기도 하다. <▲이선화·광주시 서구 마복동

시설

'미적미적' 혁신도시, 완공 일정 지켜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일부 공공기관들이 기존 사옥을 팔지 못했거나, 이전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2014년 완공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명박 정권의 무관심으로 2년 이상 지연된 혁신 도시가 또다시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혁신 도시는 공공기관들이 입주할 차열일 미루면서 2014년으로 늦춰졌고, 15개 입주 대상 기관 중 나주혁신도시 부지에 신청사를 짓고 있는 곳은 9곳에 불과하다.

현재 신사옥 공사에 들어간 공공기관은 우정사업정보센터를 비롯 한전, 전력거래소, 한전KPS, 농어촌공사, 국립전과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차공식을 갖는다.

그러나 문화예술위원회, 사학연금공단, 콘텐츠진흥원, 한전KDN,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6개 기관은 올 하반기에 신사옥을 착공한다

는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신사옥 신축기간이 최소 1~2년인 점을 감안하면 일부 기관은 완공 시까지 입주자 불투명한 실정이다.

특히 인터넷진흥원, 농촌경제연구원 등 2개 기관은 기존 사옥을 팔지 못해 혁신도시에 신청사를 세울 부지조차 매입하지 못하고 있어 혁신도시 완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공기관의 이전이 이처럼 지지부진한 것은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마당에 이전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공공기관이 앞장서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있겠는가.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공공기관에 이전을 맡기지 말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공공기관별 사업 진척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이전을 의도적으로 미루거리는 기관은 엄히 책임을 묻되, 예산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은 적극 지원을 줘야 할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장만채 교육감 구속 전남교육 차질 없어야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전격 구속되면 서 전남교육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국 거의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은 어느 누구도 그 지순함을 훼손할 수 없다. 그런데 그 핵심인 교육감이, 그것도 당선 축하를 받기 전에 구속된다는 건 교육계에 엄청난 충격이다. 시민단체들도 '진보 교육감'에 대한 표적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실은 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다. 하지만, 친구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점 등은 그가 평소 강조해온 도덕성에 비추어 죄책감이 아닐 수 없다.

장 교육감이 구속된 마당에 전남교육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도 교육청은 이번 사태와 상관없이 이미 시행에 들어간 각종 정책을 누수없이 추진토록 해야 한다. 검찰도 후속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교육감 역시 스스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지 판단해 하루빨리 전남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장 교육감은 전교조 등 시민단체의 지원으로 당선된 '진보 교육감'이다. 청렴을 으뜸 덕목으로 삼았고, 시간 있을 때마다 이를 강조해왔다. 그런데 본인이 정자 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다는 건 지역민의 기대를 저버린 처사다.

물론 장 교육감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진보 교육감'에 대한 표적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실은 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다. 하지만, 친구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점 등은 그가 평소 강조해온 도덕성에 비추어 죄책감이 아닐 수 없다.

장 교육감이 구속된 마당에 전남교육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도 교육청은 이번 사태와 상관없이 이미 시행에 들어간 각종 정책을 누수없이 추진토록 해야 한다. 검찰도 후속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교육감 역시 스스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지 판단해 하루빨리 전남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無等鼓

여수와 광양 사이 광양만의 중앙에 묘도(龜島)라는 섬이 있다. 고양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한때는 잘못된 풍수사상으로 쥐(鼠)와 음이 같은 서씨 성을 가진 사람은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온 곳이다.

묘도는 전략상으로 중요한 곳으로, 임진왜란의 역사적 무대가 됐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진을 치고 일본군의 대항과 맞서 싸웠던 기항지다. 조·명 연합군은 이 섬을 기점으로 인근 노량해전을 벌여 7년간 끌어온 임진왜란을 끝낼 수 있었다.

묘도는 특히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숨지기 전날인 1598년 11월 18일을 보낸 곳이다. 충무공은 묘도에서 최후 작전회의를 하고 이튿날 노량해협에서 적선 450척을 격파하는 대승을 거뒀지만 적의 유란에 결국 유명을 달리했다.

414년만에 묘도에 충무공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이순신대교가 완공됐다. 여수~묘도~광양을 잇는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의 일환으로 건설된 이순신대교는

우리나라 교량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우선 우리기술로 지어진 첫 번째 현수교로 세계적으로도 독자 기술로 현수교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4개국에 불과하다.

케이블을 연결하는 주탑 270m는 콘크리트로는 세계 최고로 서울 남산(262m)과 63빌딩(249m)보다 높다. 케이블 에만 1만2000가닥이 사용됐고, 길이는 7만2000km로 지구 두바퀴를 돌 수 있다.

주탑 사이의 거리(주경간장) 1545m는 충무공이 태어난 해로 역사적 의미도 깊다. 21만급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두척이 교차할 수 있는 거이다. 주탑 사이 케이블 길기도 설계 당시에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시공하다보니 1598m로 충무공이 숨진 해와 같아졌다.

이순신대교가 여수엑스포 개막에 맞춰 다음달 10일 임시 개통한다. 동남권에서 여수로 경유 70분이 단축된다고 한다. 이란하면 충무공의 음덕으로 여수 엑스포 성공 개최는 물론 전남 동부권 산업발전은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장필수 사회부 차장 bungy@kwangju.co.kr

이순신대교



|  |                |                                    |                     |
|--|----------------|------------------------------------|---------------------|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                | 논설주간 申港樂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                     |
|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                | 광고문의 062-227-9600                  |                     |
| 편집국내<br><대표 FAX 222-4918>                    | 문화생활부 2200-661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홍보국 2200-541      |
| 편집부 2200-649                                 | 여론재무부 2200-621 | <F A X 222-8005>                   | <F A X 222-0195>    |
| 정경부 2200-612                                 | 체육팀 2200-697   | 광고매케팅국 227-9600                    | 독자서비스국 2200-551     |
| <대표 FAX 222-4918>                            | 사진부 2200-693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
| 사회부 2200-616                                 | 조사부 2200-571   | 디자인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대표 FAX 222-4267>                            | 전산부 2200-685   | 기획사업국 2200-535                     | <F A X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